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5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955호 1판 (음력 2월 5일)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맞춤형 복지급여' 하반기 도입

광주·전남 기초수급자 3만6천명 추가 혜택

소득기준 초과해도 수급 가능
6월 초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올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가 도입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원 예산액도 크게 늘어 매년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추진 체계 구축에 한창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은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부문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용어도 생계 기초수급자, 의료 기초수급자, 주거 기초수급자, 교육 기초수급자 등으로 세분화된다.

? 맞춤형 복지급여제

전체 혜택을 받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자)를 없애는 대신 소득기준이 생계비를 초과하더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상황 중 국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황별로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광주지역에서 기초수급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9만6549명에서 20만8524명으로 1만197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 예산액도 지난해 1668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늘어나 18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7만6000여 명에서 2만4000여 명이 늘어난 10만여명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도 월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예산액도 지난해 2131억원보다 364억원이 증가한 24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에서만 31만여명이 기초수급 혜택을 받게 되고, 예산도 연간 450억원 안팎이 증가한 4263억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수급 대상자가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도 홍보를 위해 6월초 부터 사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전담팀(통합조사팀), 시·구·군 사회복지 담당자, 동·읍·면사무소, 이장,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최우식 전남도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단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정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광주 금호고, 고대 법대 졸업
- 연수원 25기 수료
- 부산지검, 전주지검 정읍지청, 광주지검 검사
- 서울중앙 금융조사부,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 대검 검찰연구관(중수부, 감찰부)
- 부산지검 강력부장, 부산지검 외사부장(겸직)
- 논산지청장, 서울중앙 공판3부장
- 서울중앙 조사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

변호사 양 호 산 올림

◆ 업무개시 : 2015년 3월 10일(화)
◆ 개업장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서초동 1704-1) 정곡빌딩 동관 409호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 대표전화 : 02)6462-1500
팩스 : 02)6462-1600
◆ 개업소연 : 2015. 4. 13(월) 17:00부터

성범죄 불안한 광주 밤길 ▶7면

프로야구 D-4 미디어데이 개막전 양현종·소사 선발 ▶20면

"쉬운 수능 못믿겠다" 교육정책 불신

진학교사·학부모·학생들 만점자 비율 조정 위해 수학 등 변별력 확보 예상 오락가락 교육부 발표 혼란

"올해 수능 쉽게 낸다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출제위원이 작년처럼 만점자가 4% 넘도록 '물 출제'를 하겠습니까?"

올해 고3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지난 17일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며 어려운 수능을 예고했던 교육부가 사흘만에 "지난해 수준으로 쉽게 내겠다"고 입장을 바꾼데 대해 학생·학부모는 물론 진학교사들도 믿지 않고 있다.

진학교사들은 교육부 발표를 작년처럼 만점자가 많이 나오도록 출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송형래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국제고 진학부장)은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쉽게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출제위원들은 지난해 수학처럼 변별력 부족으로 만점자가 속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일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어보다는 수학에서 1~2문항의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 상위권을 구분지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게 쉽게 내겠지만 만점자 비율 조정을 위해 까다로운 문항을 일부 포함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1문제만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앉는 사태는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 20일 전남대에서 열린 수능개선위원회의 '수능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2차 공청회에서도 읽혀졌다. 김신영 수능개선위원장(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은 이날 "최상위권이 실수로 틀렸다는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항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항의 난이도를 5가지 척도(아주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아주 쉬움)로 분류해 그 비율을 유지·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수능 난이도는 최상위(1등급) 수험생들이 기준이 아니라 60만 수험생이 기준이다. 전체적인 수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수험생이 느끼는 수능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쉽지만, 상위권 수험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이 일부 출제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입시설명회를 연 EBS 측도 "올 수능이 작년보다는 어려워지는 게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전반적으로는 EBS 70% 연계 등으로 쉬운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일부 고난도 문항으로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도 냉담했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박모(여·47)씨는 "어렵다고 한 지 사흘만에 쉽게 낸다는 교육부 발표에 혼란스럽고 믿기 어렵다"며 "고난도 문제를 대비해 학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고 답답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봄맞이 31층 유리창 청소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의 봄 맞이가 한창이다. 23일 오전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본사 건물 31층에서 청소업체 직원들이 외벽 유리를 닦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권 광역의원 100명 코레일·국토부 방문
호남선 KTX 요금인하·속도개선 강력 촉구

광주시·전남도·전북도 의원 등 호남권 광역의원들은 23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호남선 KTX 요금 인하와 속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방문에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등 호남권 광역의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레일에서 개최한 항의집회에서 "호남권 550만 시·도민은 10년을 기다려온 호남선 KTX의 비싼 요금과 운행 소요시간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호남선인지 분노하고 있다"면서 "경부선에 비해 10% 비싸게 책정된 요금을 인하하고, 정부는 분기역 선정 당시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라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호남선 KTX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 '요금 차별 약속 파기 코레일은 각성하라' '19Km 추가요금 정부가 책임져라' '호남 차별하는 정차율을 조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성난 호남 민심을 대변했다.

의원들은 또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각각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KTX운임과 소요시간은 지역차별과는 무관하며 운임은 정부의 요금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여론을 감안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광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구약 과정 개강
문의 : 062) 605 - 1112 광신대 평생교육원